

中小企業, 機器 業体와 部品 및 素材 業体가 같이 高度化될 수 있도록 배려가 있어야 하겠고, 과거 重工業 분야에서 경험한 바와 같은 중복 投資는 사전에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電子工業 振興基金의 조성 자체도 중요하지만 基金의 運用管理面에서 특정 부문 내지는 특정 企業을 위한 基金이 되지 않고 참으로 전반적인 電子工業의 高度化에 기여할 수 있는 基金이 되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電子工業振興會에 많은 業務와 權限이 委任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業界의 의견이 바로 政策에 반영되는 일종의 諮問機關에서 벗어나 執行機關으로서의 역할에 기대하는 바



크다. 그간의 對政府 窓口 역할이라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명실공히 電子工業의 振興機關으로서의 적극적인 자세로 각 오를 새로이 하여 주었으면 하고, 電子工業에 종사하는 모든 企業은 電子工業振興會는 우리가 구성하는, 우리를 위한 機

関심을 새롭게 인식하여 보다 긴밀한 협조하에 현재 맞이하고 있는 第二의 轉換期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는 데서 개정된 電子工業 振興法의 참된 意義를 찾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 電子工業振興法 改正에 바란다 ●

特 輯

# 振興法 改正 이후의

## 方向과 課題



朴 希 俊

韓國電子通信(株)企副担当理事

## 過去 10年間の 国内 電子産業

1969年 電子工業振興法이 新規制定되던 당시의 国内 電子産業 규모는 台湾의 1/3 그리고 日本의 1/70 수준에 불과한 2,000万弗線이었으나 10년 후인 1979년에는 32億弗 규모로 성장하여 台湾 수준의 90%, 日本의 1/9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연평균 48%의 成長率로서 동기간 중 台湾(年平均 31%) 및 日本(年平均 15%)의 成長率을 크게 상회하고 있을 뿐 아니라 国内 他産業의 연평균 成長率(20%)도 크게 앞지르는 성과였다. 이러한 高度成長의 결과로서 電子産業의 비중은 계속 증가해 왔으며 1979年度の 總製造業 중 輸出은 12.3%, 生産은 8.5%의 비중을 점유하여 10年 전과 대비할 때 각각 2~6 배씩 점유비가 높아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970年代의 電子産業은 핵심적인 成長 産業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왔으며 그 原動力은 저렴한 国内 賃金 수준과 모방 및 도입이 용이한 外国技術의 결합에 있었다고 하겠다.

### 電子工業振興法 改正의 背景

그러나 外形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1) 상대적으로 附加價值가 낮은 家電用機器를 중심

으로 한 電子産業 구조의 後進性, (2) 外形 성장에 치우쳐 内実, 즉 素材 등 關聯 系列産業의 未定着 및 新製品 開發能力의 微弱, (3) 미진한 生産性 向上 등의 문제점이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1980年度에 -13%의 成長率을 기록한 것은 전반적인 景氣 감퇴에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겠으나 電子産業 자체에 내재하는 구조적인 문제에도 큰 요인이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현재의 産業 구조에 내재하

### 国別 電子産業의 構造

(%)

	韓國 (79)	日本 (79)	美國 (79)	西獨 (78)	'82-'86中予想 年平均成長率
家庭用機器	42	33	12	23	6.6
産業用機器	10	38	65	50	11.6
部 品	48	29	23	27	10.5
合 計	100	100	100	100	10.6

資料：商工部 統計

이러한 国内 電子産業의 입장과 世界的인 추세를 감안할 때 韓國의 電子産業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産業 構造 및 制度 등 포괄적인 産業戰略의 변경이 필연적인 사항이었으며 이러한 時代的 요청에 부응키 위한 조치의 하나가 이번(81年 4月)의 電子工業振興法 改正이라고 볼 수 있다.

### 이번 改正의 方向

政府는 1985年의 電子産業

는 문제점은 向后的 電子産業 발전에 暗雲 — 技術의 停滯, 競争力의 상실, 輸出 부진 등 — 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先進 電子産業의 趨勢는 家電用機器에 비해 향후 成長率이 2배 정도로 예상되는 産業用機器를 중심으로 電子産業 구조의 高度化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高度化의 핵심 분야를 이루는 컴퓨터 및 半導體産業의 육성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 목표를 65億弗 규모로 책정하였으며 동규모는 世界 제 5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의 電子工業振興法 改正의 방향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戰略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그 주요 방향은

○ 電子産業 高度化 추진을 위한 政府 지원 체제의 정비

○ 電子産業 高度化의 주력을 産業用機器로 전환

○ 技術開發의 여건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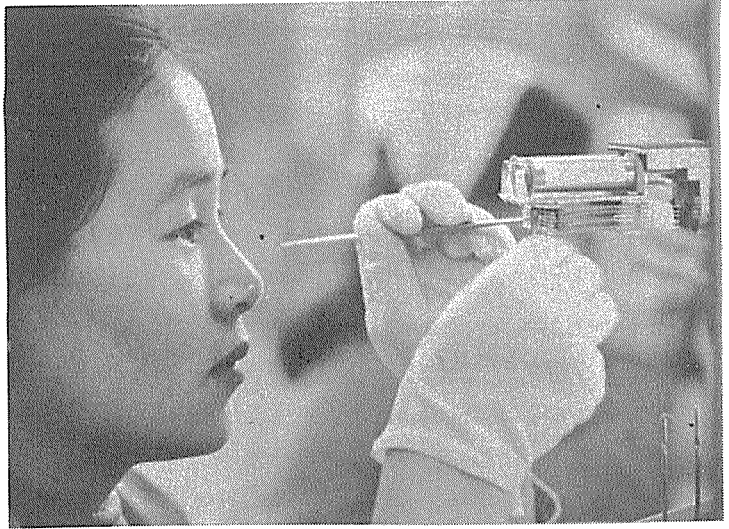
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구체적

으로는 半導體, 컴퓨터 및 電子式 通信機器를 중심으로 電子産業을 育成키 위한 支援策을 立法, 資金, 稅制 및 行政面에 걸쳐 推進할 수 있는 근거가 될 法規라고 하겠다.

이러한 기본 戰略이 의미하는 바는 국내 電子産業이 勞動集約型내지 技能人力依存 一변도의 발전 방식에서 技術 및 資本集約型的의 高度化 단계로 진입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단계에서 韓國은 他競爭國보다 技術 및 資本面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향후의 발전 여부는 先進諸國과 競爭 가능한 여건을 여하한 방향으로 조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向后的 課題

이번의 改正으로 향후 국내



電子産業 育成을 위한 골격은 마련되었다고 하겠으나 실질적인 발전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실행을 위한 제반 후속조치, 즉

○각종 施行規程 및 政策立案案이 필요하며,

○政府 및 關係機關의 탄력적인 制度의 운용이 필요한 동시에,

○育成 대상에 되는 電子産業界의 合理的 經營이 요구되고 있다. 政府와 業界가 이러한 공동 관심사들 앞으로 얼마나 時宜適切하고 現實性 있게 다루는가에 이번 改正의 成敗가 달려 있으며, 나아가서는 1980年代 국내 電子産業의 수준이 달려 있다고 하겠다.

### ● 電子工業振興法 改正에 바란다 ●

### 特 輯

# 電子業界 모두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金 聖 俊

三星電子工業(株) 企劃調査室 部長